생명 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명 공학은 가족을 새로운 방식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렇다면 생명 공학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방식을 수용해도 되는 것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생명 공학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방식을 수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 공학 기술(정자 은행, 대리모 등)을 이용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흉이 된다.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하거나, 대리모가 자궁을 제공할 때 그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받게 된다. 만약 정자 제공자 및 대리모가 출산 수단의 확보를 위해 정자나 자궁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영리 추구의 목적이 뚜렷해 이에 지원하게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명 공학 기술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미국에서 기증 정자로 출산한 여성이 일곱 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형제를 찾아주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같은 남자로부터 정자를 받아 태어난 아이가 무려 150명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생명 공학 기술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가 돈을 벌기 위해 뛰어들 것이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만약 해당 방식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닌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적 제약을 뛰어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이에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족의 방식을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외 없이 허용하는 것은 생명 윤리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만약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의 생명을 중단할 권리는 출산의 주체인 대리모, 아이를 키울 양육자, 태어날 생명체인 아이 중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 아이는 자신의 생명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아이가 자신의 생명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대리모와 양육자 중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이의 삶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체는 대리모가 아닌 양육자이다. 따라서 생명 중단의 권리는 양육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양육자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경제적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출산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아이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어 생명 유지가 힘들다면 양육자는 아이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중단시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태어날 아이의 고통을 미리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가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고 아이를 위한 선택이다. 만약 아이의 유전적 문제로 인해 대리모와 양육자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리모의 강요로 인해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이는 생명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키워내려는 양육자에게도, 유전적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힘겹게 유지해 나가려는 아이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며, 이는 양육자를 위한 선택도, 아이를 위한 선택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자의 생명 중단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아무런 유전적 문제가 있지 않을 때 단순히 양육자의 변심으로 인해 아이의 생명을 중단하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자의 판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양육자가 아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